

# 독자의 소리



## 몸살없는 사회과학 동아리 과감히 현실을 직시하자

사회과학, 문예운동 동아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소위 '의식성' 있는 논리로 현실을 배후로 하는 동아리들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개강의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사(?)인 신입생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문예운동 동아리의 한 일원이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나 일방적 책임성을 갖고 이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뛰어나게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내부에 있을 것이다. 무엇일까? 나의 한결같은 인식이 틀 안에서는 단지 하나 밖에 표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각 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는 점이며, 만약 충실했다면 그 결과물이 동아리 외부의 학우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과연.....

그러나, 여기에서 동아리 내부의 잘잘못만을 따지고 그것이 전체 분위기의 전체적인 요인이란 생각하지 않는다. 동아리 외부의 환경적 요인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우선 과거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현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과 나눌때, "나도 잘못한 것은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있지만 그러나 까봐 잘못해서 적하면(?) 밥 굶는다는 말인가?

밥 굶지 않고 온 활동기위해 대학에 들어왔다고 몇몇이 말하는 사람에겐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기에 존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형정치를 만들고 별책박스를 만들고, 아나 학우기를 만든후에 그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회피한다면.....

그렇다. 정부에 의한 과감한(?) 행정적 해체로 죽어있는 과거의 특수성을 과감하게 우리를 함락시키고 끌어내려 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감히 현실을 직시하면, 왜 우리가 '의식성'을 가지면 안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때 인것 같다. 바로 지금.

박 승 진 (수학 · 90)

## 친구 물건을 빌려갈때에는 간단한 메모라도 남겼으면

곤란한 일이 생겼다. 일주일 전에 3만원짜리 책을 사 놓았다. 그 다음날 서점에 갔다가 사흘 뒤에 오니 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다. 그 책은 화공과에서 필요한 책이어서 누가, 불려고 빌려갔나 싶어 과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 보았다. 그런데 우리 방에 와서 책을 빌려갈 만한 친구한테 연락을 다 해 보았는데 아무도 안 빌려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 빌려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친절하게 지내다 보니 자기방과 구별을 못한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 빌려갈 때 친구가 없어도 막 빌려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친구는 그 물건을 찾느라 곤란한 때도 많다. 만약 친구

가 없는 방에서 물건을 가져갈 때에 누가 언제 빌려가고 언제 갔다 주겠다는 간단한 메모를 남긴다면 물건을 빌려갈 일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조그마한 행동도 서로의 우정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창 규(화공 · 90)

## 생활관자치회에 바란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길

우리학교에는 세가지의 중요한 학생자치회가 있다.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생활관 자치회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세 기구들은 서로 어깨를 맞출 수 있는 동등한 조직이며, 학생들의 생활에 크진 작진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자치기구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생활관 자치회의 중요성은 한층 더 부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생활관 자치회에 몇가지 당부말 하고 싶다.

우선 생활관생의 권익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해야한다. 볼수록 하나만 잘 쳐우어 놔다 해서 자치회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닐 것이다.

두번째로 자치회의 전통과 권위를 세워야 한다. 전통이 대외에 중요한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총학생회의 수단의 위치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자치회에 접수되는 비판을 새겨들고, 좀더 진일보한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것은 악은 쓰다"는 사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으나, 알고 있는 것 만큼 잘 실행되어 지지도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의 자치회는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비록 정식으로 선거를 거쳐 회장단이 선출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자치회를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을때에 앞으로 나선 그 용기로서 앞으로 산책해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생활관 자치회가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관 자치회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될때는 아무도 자치 생활관 자치회 선거에 대해서 할말없지 않을 것이다. 자치회, 파이팅!

이 규 철 (경영 · 89)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는 동아리의 활동이 활발히 되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대학문화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이번 10일 우리 대학에도 동연이 결성되었다. 동연에 대해 자세한 알아보기위해 동연 회장 김중철씨를 만나보았다.

"동연이 생겼다는 인식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제가 맡은 것 뿐이지요. 이런 것을 누가 맡았나 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나가는가, 그리고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재갈림을 찾아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동연 회장의 역할을 설명하는 그는 작년부터 동연을 구성

과 공강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대학 문화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피와 땀의 댓가로 이루어진 만큼 민중들의 기대감을 맞게 동아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동연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는 회장으로 나서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학생

수행해 나가야. 저는 총학과 동연의 일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동아리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동연이 일을 진행해가면서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동아리간의 불만 제기에 관해 '최근 방학때 각 동아리들의 이해가 도움이 되었어요. 곤란한 상황이 각 동아리를 자체 시켰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1호관의 남은 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방학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연이 하는 일에 대한 동연의 이해를 부탁하였다.

동연은 우선 전국 대학에 동연 출범을 알리고 자



김 중 철 (동아리연합회 회장)

## 동연에 대한 동아리들의 관심이 중요

하려고 하였는데 작년에는 방 배정문제만 약간 다루거나 중요하고 과연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해 나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동연의 목표와 의의에 대한 질문에 그는 "동아리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준다는 게 목표. 대학 문화의 올바른 수준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무를 세워야 하는 데 그 이유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 때이 늦고 오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리 연합회도 동아리들이 제갈림을 찾아와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고 그리고 또한 대중적 동아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대다수 동아리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로서 주권에서 벗어나더라도 행사에서 동연에서 구체적으로

동아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외부 동아리와의 연계 문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특히 외부 동아리 연계 문제는 앞으로는 동연이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동연으로 삼고 있는 계획은 동연의 독립적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동아리 밖 활동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연이 활동해 나가는데, 즉 예산이나 학교측의 대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한 동연이 개인외의 사사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동아리들의 동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리라. 그리고 스스로 동연에게 평가를 요구하는데 동연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문>

# 문화기획

## 학내문화 우리가 가꾼다

### ② 품물패 '어울림' '소리모음'을 찾아

품물이 어우러져 좋게 온 기쁨을 만들어 낼 때 집요하게 들춰내며 장단에 맞추어 춤출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정서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신명'이라고 말한다. 또 그 장단에 힘써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로 '신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씩 단절되어 이제는 다소 생소하거나 어색할지도 모른다. 실재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고유의 음악보다는 외국의 음악, 특히 Rock계의 판송이나 가요에 귀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우리 학교에서도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관중에 도취되어서 혼자 춤출려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루한 것만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소리와 기쁨을 되찾고 그 속에서 민족성을 일깨우고 나아가는 민족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동아리들이 있다.

그 주인공들이 대학의 품물패 '소리모음'과 대학원의 품물패 '어울림'이다.

88년도 총동 협회에서는 '과거기술연구회'와 문화부문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어울림'은 지금까지 2회의 정기 공연을 가졌으며, 이번에 17명의 신입회원을 받아들여이른 총 동아리원은 30명이 되었다. 박·장구·판소리·장승의 전통을 통해 우리 고유의 기쁨을 창출해 내고, 그 속에서 사자적 가

는 우리의 신명을 되찾아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학 문화를 가꾸고자하는 '어울림' 회원들은 품물패 배우며 민중을 익히고, 품물패 시간을 내어서 전통 문화에 대한 세미나, 과거기술자의 작업장에 관하여 토론과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어울림' 회장인 김창호(수학·1학년)씨는 "앞으로는 학우들과

보고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86년 대학 개교시에 노래 퍼포 시자하여 지금도 품물패로서 향토적이고 민족적인 삶의 문화를 일구고자 노력하는 '소리모음'은 집회와 작업장이 행사나 학교의 중요한 행사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역할을 해왔고

가끔은 함의(?)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소리모음'의장인 박정규(기계·89)군은 '동아리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은 마땅히 연습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품물패는 소리가 퍼지고려워 교수님이나 학우들로부터 함의를 받곤 하죠. 저희 회원들은 품물 패를 통해 민족 문화를 배우고 민족을 위한 과거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전통을 회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여름학기에는 문화 학교를 개최하여 일반 학우들과 함께 우리 것에 용해 도취되어 보고 부단히 이 품물패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소리모음'은 지금까지 2회의 문화학교를 통해서 일반 학우들에게 품물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름다운 우리 민요도 같이 불러보도록 학생 대표들의 거리를 통해 동아리 대외에

있게 다가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직접 사물을 다루는 데는 더욱 현실적인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여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자세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우리의 장단과 때이 늦을 수 없는 우리의 총과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기존에 대학에 있던 달인인 '달인'이 해체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총을 전수받아 '마당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다 학생들과 밀접하게 유대해 나가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행사에 도움을 주는 데는 그치는 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야 하겠다.

<김길환 기자>



<석림축제(총동)공연 마당극'제자리 찾기'중에서>

# 대우가 있습니다

##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아래의 대학생활은 물어볼필치. 옷이 마땅치 않아 공부에 몰입이 없고, 부사기도 없이 필요한 자료도 알아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다. 학과만 남았지만 수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예가 여유로운 생활만 공부중처럼 걸긴 보게되고 계속적인 학과를 사계절로, 삼계절만 걸면 모르면 모르면 내는 꼴도 볼만. 너의 학과 보정을 거느리니 문득 그때의 봄은 한기가 매나오는 듯 실수. 아예가 열심히 나가 리마와 모래사막을 걷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순환이름을 이기 위해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봄은 열정과 재기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예가 하던 나에게는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현인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밝은 눈을 가차 없이 세게 휘젓는,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생각해... 아예가 때론 깊은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찌워 사회로 나오면 좋겠다.”

성실하게 부린 댓값이 성취의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아예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